

교회연구소 연구 발표회

# 개혁 교회의 분석과 전망

열리는 때: 원기 84년 4월 20일(화) 오후 1시-5시

열리는 곳: 원불교 중앙 총부 법은관 2층 회의실

교 화 연 구 소

# 연구발표회 일정

## ● 개회식 ●

사 회: 오도철 교무

격려사: 이종진 교무

## ● 연구발표 ●

1. 개척 교당의 현황과 제언...2쪽  
한창민 교무(원광대)
2. 신도시지역의 개척교회에 대한 연구 ...9쪽  
성정진 교무(화정교당)
3. 소도시 지역의 개척교회 연구-사례담을 중심으로...16쪽  
이진도 교무(후포교당)
4. 많이 알·만·주 교회 -전곡 교당의 예를 통해본 읍면 지역의 개척교회...22쪽  
최정풍 교무(전곡교당)

## 개척 교당의 현황과 제언

한 내 창 (창민)

### 1. 이끄는 말

집단이나 조직, 또는 단체는 나름대로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다 (Stevens & Loudon 1992). 이 생애 주기의 정명과 원리를 잘 알아서 각 단계마다 적절한 노력들이 기울여 질 때 그 집단은 활기를 뿜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쉽게 조직 피로 현상이 오고, 집단은 탄력을 상실하고 급속한 쇠퇴의 과정을 겪게 된다. 조직 피로 현상은 경영자가 집단의 생애 주기의 원리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원리를 안다 할지라도 해당 집단이 어느 단계에 처해 있는지 또는 그 단계에 적절한 경영적 처방이 무엇인지를 알아 적정한 경영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을 때 극대화된다 하겠다.

원불교 교당들도 하나의 단체로써 이러한 집단 원리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교역자들이 이러한 집단 생애 주기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조직 경영에 임함으로써 교당발전을 어렵게 만들 소지가 없지 않다. 이를테면, 초기 교당에는 각종의 정책적·물질적 지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사명을 띤 개인들에게만 맡겨져 있고, 이제 간신히 성장 초기 단계에 들어섰는데 기성 교당과 같은 관리 체제로 들어감으로써 집단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적절하게만 운용되면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교당들의 생애 주기에 대한 적절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집단 생애 주기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개척 교당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개척 교당 13개소 (교화부 제공) 가운데 특별한 이유<sup>1)</sup>가 있는 곳 4개소를 제외한 9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은 교당 창립 과정, 현재 상태, 지역의 상황, 교화 노력,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개척교당의 교화 전략에 관한 제언이 시도될 것이다.

### 2. 개척 교당의 현재 상황

#### (1) 분석틀

개척 교당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잘 조화를 이루며 상승작용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 개척 교당의 교화가 정착하려면 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들을 대략 유목화하여 도시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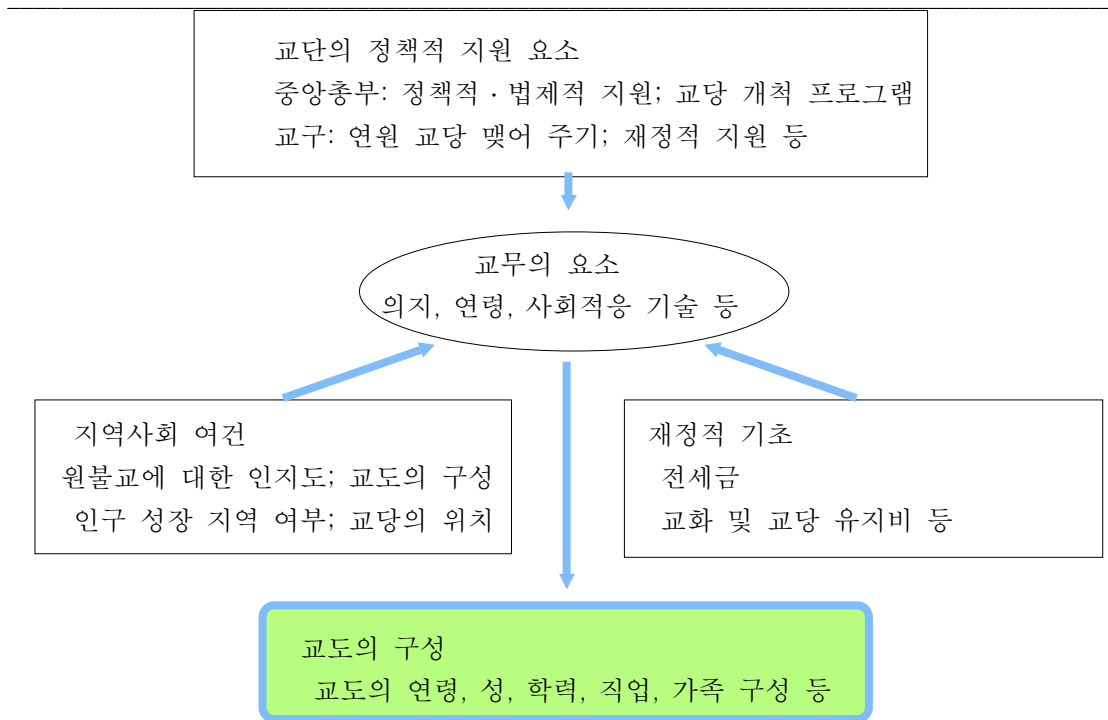
첫째, 교화의 주체로서 교무의 요소가 필요하다. 개척 교당 교무는 관리자나 세련된 경영자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 불굴의 창조적 의지를 가진 사람, 연령적으로 비교적 젊은 사람, 다양한 사회 적응 기술 (복지사나 유치원 교사 자격증 등)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

---

1)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한 군데, 개척교당이라고는 하지만 교화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 1군데, 교무가 질병으로 철수한 곳 1군데, 그리고 개척교당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화활동이 장기간 지속되어온 곳 한 군데 등 네 개소를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으로 요구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무의 요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주변의 상황적 요인과 교단의 정책적 기획 능력, 그리고 기술적 여건 등이 구비되어야만 성공적인 개척 교당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둘째는 지역 사회 여건을 들 수 있다.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 인구 성장 또는 정체·감소 여부, 지역 주민들의 구성, 그리고 교당의 위치 등이 개척 교당 성공의 중요한 함수일 것이다.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 주택(아파트)를 찾아 교당을 설립하여 젊은 층들에게 접근하면 교회는 활성화될 수 있다. 셋째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 기초를 필요로 한다. 초기부터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교무와 교도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 개척 교당의 시작이 불가능할 것이다. 넷째는 교단의 정책적 지원 요소일 것이다. 중앙 총부의 정책적 또는 법제적 지원 노력과 개척 교당 가이드라인과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교구의 지원이 개척 교당 성공의 중요한 함수가 될 것이다. 다섯째는 교도들의 사회·인구학적 구성이다.

< 그림 1 > 개척교당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



(2) 개척 교당의 현주소

① 교무의 개척 의지: 조사 대상이 되었던 개척 교당 교무 "대부분"은 강한 개척 의지를 보였다.<sup>2)</sup> 그들은 교역 활동을 시작한지 10년 내외의 교무들로 교회의 한 장을 열어보겠다는 강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문화 교당,"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당," "선수련에 기초한 훈련 교당," "사회복지에 토대를 두고 저변확대를 모색하는 교당" 등 나름대로 다양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교역에 임하고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개척 교당 교무들은

2) 한 교당은 지병으로 이동을 자원하였으나 중앙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함.

때론 열악한 환경과 주변의 물이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장벽들을 넘어서기 위한 안간힘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지만 가지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개척 교당에 임하는 교무들은 “투철한 정신”과 아울러 사회적인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렛대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중앙 교구나 전남북 지역을 벗어나면 이러한 상황은 절박한 정명(imperatives)으로 바뀐다. 원불교를 인지하고 있지 않고 또한 연줄망(social network)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용한 복지활동이나 선수련 자격증, 기(氣)치료 자격증 등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지렛대와 계기를 마련해준다고 본다. 개척교당 교무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며 접근들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보다 심도 있는 전문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② 교당의 정책적 지원 요소: 그 동안 교단은 개척 교당에 대해 부정적 제재를 가하여 왔다. 무분별한 개척 교당 창립이 교화의 질과 내실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에서 까다로운 인가 조건들을 제시하며 억제 정책을 펼쳐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앙부에서부터 개척교당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전환은 적극적인 교화 개척 전략에서 파생되었다기 보다는 “인사 정체”에 대처하는 다소 소극적 자세에서 발생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교단과 교구는 개척 교당에 대한 아무런 정책적, 법제적 지원책이나 교당 개척 프로그램, 또는 재정 지원책 등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화 개척자가 “어찌됐던 알아서 죽기로써 노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재(私財)를 투입하여 교당 건물을 임대하거나, 또는 가까운 인연의 지원을 얻어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최악의 경우는 막노동이나 공공 근로작업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은 교당이 없는 군(郡) 단위에 개척 교당들을 하나씩 포진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과거보다 진입비용 (entry cost)이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준비 없는 교당 열기는 교화력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③ 지역 사회 여건: 아무리 교화 주체가 건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중앙의 조직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체 내지 쇠퇴해 가는 지역에서, 또는 원불교에 대해 무관심 내지 반감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교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하겠다. 조사 대상 개척 교당들 가운데 중앙 교구에 속한 교당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당들은 “비우호적인 지역사회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각종의 원불교 기관들이 중앙에 집중되어 간접 교화의 장을 열고 있기 때문에 중앙 교구 지역은 연줄망을 통한 잠재적 교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쉬운 교화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여타의 지역은 이러한 간접적 지원의 여건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상태에서 교화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현재 성장하고 있는, 또는 잠재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개척 교당도 초기의 진입 비용을 마련치 못하여 교화의 잠재력을 키워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좋은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거나 거의 없는 외곽지역에 자리잡음으로써 교화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자체 견제 요인 때문에 교화 개척이 제약되는 아이러니조차도 발생하고 있었다. 개척 교당이 주변의 열악한 타 교당의 교화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견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④ 재정적 기초: 조사를 실시한 9개 개척 교당 가운데서 중앙 교구에 위치한 3개 교당과 경북 지역에 위치한 한 교당은 교구나 교구에 속한 교당으로부터 최초 진입 비용 지원 (건물 임대 내지 구입 비용)을 받아 출발하고 있었지만, 기타 지역 (경기도, 부산, 군산 지

역) 교당들은 교무 자신들이 건물 임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타 지역에 위치한 개척 교당들은 교화 활동 비용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이들은 연원 교당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지원이 있다 하여도 월 20만원 내외로 기본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막노동이나 공공근로 사업, 보험 관리 등에 참여하고 있는 교무도 있었고, 운전을 하거나 인쇄소를 경영하면서 교화 활동비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제적 문제로 교무의 활동이 제약되고, 시간의 대부분을 교당 유지비 마련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한 주변의 물이해한 질책으로 심한 심적 갈등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⑤ 교도들의 사회인구학적 구성 요소: 중앙 교구에 위치한 교당들은 처음부터 기성 교당들 못지 않은 비교적 균형잡힌 교도 구성으로 출발하고 있었다. 교도의 절대 숫자, 남녀 비율, 직업 분포, 연령 등 다양한 구성요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틀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타 지역 교당은 대부분 취약한 교도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평균 10-20명의 일요 법회 출석 교도를 가지고 있었고, 대체로 중하위 사회 계층을 흡수하고 있는 편이었다. 의견 선도자들이나 사회지도급 인사들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하여 볼 때 현재의 개척 교당 교화 상황은 오직 교화자의 열의와 능력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중앙 교구를 제외하고는). 즉, 정책적 지원 요소나 지역 사회 여건, 재정적 토대, 교도들의 인적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오로지 개척한다는 일념만으로 교역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3. 몇 가지 제언들

#### (1) 교단의 정책적 지원 요소

① 개척 교화 장려의 필요성: 교단은 정책적으로 개척 교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척 교당은 종합 예술의 실험장이고, 새로운 교화 모델의 시험장이다. 기존 교당들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교화 모델을 실험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개척 교당 자원자들을 모집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야 할 것이다. 그레야만, 예비 교역자 시절부터 신앙·수행의 자력을 갖춘 정신적 능력과 개척 교당에 필요한 전문·기술적 능력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명 1조의 개척 교당 자원을 독려하고, 자격과 교화 설계를 세밀하게 검토하며,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통로화할 필요가 있다.

② 교당의 교화 특성화 가능성: 다양한 장르의 교화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 현재의 교화단 관리 체제 교당교화 방식으로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제품은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마케팅 경구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교화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척 교당들이 다양한 장르의 교화를 실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훌륭한 어린이집 교화, 가정 폭력 상담소를 통한 교화, 교도들의 문화적 심미안을 제고시켜 주는 교당, 빈민자의 안식처 역할을 제공해 주는 교당, 시민 운동의 요람 역할을 하는 교당 등 다양한 모델들이 시도·관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③ 교화 영웅(champion) 만들기 작업 필요: 개척 교화에 성공한 사람을 영웅으로 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개척 교화자상”으로는 개척 교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다. 희생은 자기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은 커다란 좌절감만을 안겨준다. 주변의 주목과 독려는 개척 교당 교화자들로 하여금 자기 혁신의 동기를 제공해 주고, 커다란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당의 희망이라 하겠다. 교당은 이를 위해 교화 영웅을 숭앙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 당분간은 하향 평준화의 경향들을 접을 필요가 있다. 즉, “한 사람이 100점 맞는 것보다는 모두 똑같이 50점 맞는 것이 낫다”는 신화는 세계 체계의 패권주의가 사라질 때까지는 접어두는 것이 나을 성싶다.

④ 개척 교당 교화자들에 대한 높은 관용도 요구: 개척 교당 교화자들은 독창적인 창조자이다. 이들은 프로그램화·통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교화 노력들을 실험한다. 때론 실수도 범하고, 교화 성공 목표의 중압감에 짓눌려 일탈을 하기도 한다. 절망적인 노력에서 기존 교화 패턴들에 도전하기도 하고, 기존 교화 영역을 침범하기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척 교당 교화자들에 대한 높은 관용도이다. 믿어주고, 지켜 보아 주며,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무리 건전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개척 교당 교화자들이 너무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믿어주고 기다려주며 한 발짝 다가서는 자세라 하겠다.

⑤ 교화 진입 비용 (entry cost) 지원: 과거에 비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진입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제는 뜻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던 시기는 지났다. 최소한의 기초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척 교당 교화 상황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입 비용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⑥ 교화력의 집중 필요: 현재 교당 포진 전략은 지역적 안배 이데올로기이다. 이것은 현대의 경쟁 사회에서 무전략의 표본이다. 교화가 가능한 지역에 모든 교화력을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탄력으로 다음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중앙 교구나 신도시 등 교화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여러 개의 교당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전제하면, 현재 교당 명칭을 지역 이름을 따서 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교화 목표 집단이나 전략·비전 등에 따라 위치도 잡고 이름도 짓고 교무도 선정하는 등의 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⑦ 간접 교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필요: 기관 등이 펼치는 간접 교화가 직접 교화 강조에 밀려 맥을 못추고 있는 상황이다. 간접 교화 무용론이 대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창 교당일수록 간접 교화의 위력은 생생하다 하겠다. “어렸을 때 원광 유치원에 다닌 적이 있는데 지나다가 원불교 간판을 보니 반가워 들러 봤다”든가, “원광(여)중고를 다녔는데 객지에 와서 원불교 간판을 보니 반가웠다”든가, 또는 “원불교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원광대학교가 원불교에서 만든 대학이지요”하면서 신입 교도와 대화·만남의 계기가 되는 것이 간접 교화의 도움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중앙 교구에서 원불교를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도 원광대학교나 병원 등의 역할 때문이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활발한 간접 교화의 토대 없는 직접 교화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겠다.

## (2) 교육 기관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

① 창조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조자들은 일반 관리자들과는 다른 퍼스널리티와 준비 사항들을 필요로 한다. 창조자들을 양성하려면 관료적 통제보다는 유기적 내지는 문화적 통제를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물샬틈 없는 교육 훈련이 창조성을 고갈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스 맨”은 기성 교당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내

지만, 개척 교당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세련된 설교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척 교당 인재 양성도 역시 고려하는 교육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신앙·수행의 자력과 전문 능력 배양에 초점: 예비 교역자 시절은 조금 낮고 모자라도 그에 대한 인식 없이 “어울려 그냥 돌아가게” 된다. 신앙·수행에 대한 자력이 모자라도 덮어지고, 채워진다. 대중 속에서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화현장은 다르다.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평가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다. 신앙과 수행의 자력은 누구에게 빌려다 채워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예비 교역자 시절에 이에 대한 기초가 다져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문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전국민 50% 이상이 대학 학력자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는 활동은 어설픈 “팔방미인”으로는 어렵다. 분야 분야에서 최고의 지성과 능력을 요구한다. 사회인들과 경쟁에서 어떻게 최고를 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다. 경쟁의 영역을 기술적 분야가 아니라 정신적·영적 영역으로 설정하면 최고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들의 경쟁장으로 뛰어들 수 없으면 나의 경쟁장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면 되는 것이다. 어찌 됐든 전문인 (professional)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③ 교당 교화의 실습장으로 개척 교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학교 교육은 통로화된(channeled) 사고를 형성시켜주는 장이다. 교육 기간이 늘어나면 한편으로 피교육자들을 충분히 준비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축소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 교육 준비 기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 학교 교육이 “단순히 기성 교화 현장에의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기간으로 머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장과 교화 기법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기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대학”과 “대학원 기간” 사이에 교화 현장 체험이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교무 기간이 주어지면, 대학원 기간이 새로운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에서 불가능하면, “교화 실습”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라도 필요하다. 개척 교당에 실습생을 파견하거나 또는 “무교당 활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조별 활동을 적극 권장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즉, 어떤 무연고의 지역이나 환경에 우리의 예비 교역자들이 노출되는 분위기를 조성해볼 필요가 있다.

### (3) 교당의 노력

① 교당 위치 설정: 특성화된 교당을 제외한 일반 교당은 주택가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정제되어 있거나 쇠퇴해 가는 주택 지역이 아닌 신흥 주택(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진입 비용의 문제 때문에 위치 설정에서 많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위치 설정이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도심 지역은 각종 모임의 장소로는 적합하지만, 종교 의식을 주관하고 신앙을 독려하는 장소로는 부적합하다. 교당의 위치는 교통이 중요한데, 가능하면 도보 교통이 편리한 곳이 가장 좋으며, 특수한 경우는 승용차 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을 수도 있다. 이것은 교당의 목표와 교도 구성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교당의 위치는 접근의 편리성과 주변의 환경적 여건, 종교 서비스의 질(quality), 교도들의 바램 등이 고려되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조기 기성 교당화 경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당도 생애 주기의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우리의 교당 생애 주기는 조로의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70-80% 정도가 개척 교당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성교당으로 간주되고 있다. 역사와 전통만으로 기성 교당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교당들은 너무 빨리 기성 교당이 되어 관리 체제로 이행한다. 교단에서도, 교당에서도 지

속적인 개척의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③ 교도와 지역 사회에 유익주는 교당에 초점: 초기 교당이나 영세 교당은 특히 교당의 “실용적 유용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신들에게 유익주지 못하는 종교에 스스로 찾아올 가능성은 전무하다 하겠다. 자기 자녀들에게 도움을 준다든가, 자신들에게 정신적 혹은 물질적·육체적 도움을 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설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이다. “도움을 주어도 혹시나 원불교 믿으라고 하거나 앓을까 두려워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었다”는 어느 교무님의 말씀이 종교적 교화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진심으로 다가서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 쪽에서 다가서기 시작하였다”는 말씀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④ 의견 선도자 (opinion leader)나 사회 지도층 영입 필요: 종교의 교화는 신념의 주입 내지는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통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은 가족이나 친척·친구 등 일차집단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일 것이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것이 사회나 조직의 의견 선도자를 영입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4. 끝맺는 말

개척 교당은 구조와 활동 등에서 어떤 전형이 있을 수 없다. 그야말로 새로운 다양한 장르의 구조와 활동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은 교화의 돌파구를 위해 이러한 개척 교화의 장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지원을 하면서 키워나가야 한다. 현재처럼 ‘사람만 보내 놓고 마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조사 면접을 위해 개척 교당들을 돌면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함을 느꼈다. 고마움과 미안함, 부끄러움 등. 그들의 피나는 노력들이 조그만 개인적·집단적 관심에도 꽃피울 수 있는데 너무 무관심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찾아주어서 고맙다”는 개척 교당 교무님들의 말씀이 왜 그리 부끄럽게 들리던지....

이제 개척 교당 교화는 일본의 2차 대전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은 2차 대전 기간동안 각 전장에 “투철한 황국 신민 의식으로 무장된 군인을 파견하는 것”으로 최대 전략을 삼았다. “투철한 황국 신민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신념만 가지고 전쟁에 임하다 보니, 이미 철저한 체계 분석 (system analysis)을 통해 전쟁을 준비해 임하는 미국과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전쟁에서 “정신 무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정신 무장만”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우리의 개척 교화 노력이 전남북 지역 이외에서 무모한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많이 뿌려 놓고 살아 남은 한 두 개 거두는 자세보다는 기획적으로 한 두개를 반드시 살려 거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단적으로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후자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지만, 전자는 많은 후배 교역자들을 좌절케 하기 때문이다. 개척 교당을 시작하려면 그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신도시 지역의 개척 교화에 대한 연구

성정진 교무(화정교당)

## I. 서론

###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 1) 연구 동기

교당 교화가 발전할 수록 교단은 저력 있는 교단으로 성장한다. 교법을 전하는 한 교역자의 교화에 대한 열정과 인내는 전세계를 불은화(佛恩化) 한다는 사명에 불타게 하고, 교화의 장을 일구어 가게 한다. 원기 100년을 눈앞에 둔 교단은 1인 일도 운동을 통하여 교화의 꽃을 피우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교단은 개척 교단이다. 도시와 농촌, 기관과 교당 어느 현장에서든 교법을 실천하는 교화의 장을 만들고, 교법을 펴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도시 지역의 교화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 나라에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라고 한다. 국가 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설정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 계획에 의하여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형 정주 공간을 조성해 온 것이다. 급속하게 대두되는 신도시의 형태는 다양하다. 신도시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과 대중사님 교법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낙원으로 인도되기까지 교역자의 책임과 임무는 크다.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의 교화는 개척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신도시 지역의 특성을 알아 방향을 모색하고 활발한 교화의 장이 되도록 까지 교단은 신도시 교화 정책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한다. 신도시 개척 교화는 종래의 혈성 어린 교화자의 힘으로만 일구어 가는 교화의 의미가 아닌 교단의 관심 속에 정책적인 배려가 함께 해야 됨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신도시 지역에 교당이 세워지고 교화를 시작 한지도 불과 몇 년 전이다. 인구가 밀집한 신도시에 정책적으로 교당이 서서 교화를 하는 일은 고무적인 일이다. 신도시 지역의 교화 대상은 젊다. 신도시 지역의 교화는 젊은 교단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신도시 개념에 대하여 파악한다.
- ② 신도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다.
- ③ 신도시 지역의 개척 교화 현황과 특성을 파악한다.
- ④ 신도시 지역의 개척 교화의 방법을 모색한다.

#### 3) 연구의 한계

다양한 도시의 형태, 교화지의 상황과 여건, 교무의 개인차와 특성, 개척 교화의 출발점이 다르다. 이러한 위치에서 신도시 지역의 개척 교화가 일률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신도시에 교당이 서고, 교화를 시작한다는 출범 동기가 동일한 선에 있다는 것은 개척 교화를 시작하는데 있어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데 연구에 제한점을 넘어

설 수 있다.

## II. 신도시의 의의 및 현황

### 1. 신도시의 개념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는 산업 혁명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피폐된 대도시의 정주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전원도시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신도시는 대도시가 갖고 있는 과밀, 혼잡 문제의 해결, 낙후 지역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고 나라마다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신도시에 대한 성격 규정이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도시, 신 행정 수도, 위성도시, 주택 도시, 공업단지 배후 도시, 신시가지, 주택단지 등 다양한 정주 형태를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단지과 신시가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시 공간의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해 사용되며, 통상 단지는 규모가 작고 토지이용이 비교적 단순한 개발 단위에 쓰이고 시가지는 단지보다 규모가 크고 수용되는 기능도 다양한 경우에 사용된다. (예: 목동 신시가지, 상계 신시가지 등) 이에 대해 신도시는 그것을 도시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규모와 기능을 갖춘 정주 공간의 한 단위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예: 창원 신도시, 안산 신도시등)

한편, 기성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와 기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 규모가 큰 개발이 기성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기성 도시의 일부로서 개발된다는 점에서 개념상 신시가지로 명명되어야 타당하겠지만 신시가지 보다는 오히려 신도시가 보다 적합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 안양 평촌 신도시, 부천 중동 신도시, 안양 산본 신도시 등)

또한 경제 활동이 모도시에 크게 의존적이어서 엄격한 의미에서 ‘신도시’라고 부르기 어렵지만 행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독립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신도시라고 부르고 있다. (예 과천 신도시)

따라서 신도시는 입지 유형별로 볼 때, 크게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와 같이 기존 도시 내부의 신시가지 형태인 ‘도시내 신도시’와 분당, 일산 신도시와 같이 기성 시가지로부터 물리적으로 고립된 환경에 건설되는 ‘도시외 신도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을 포괄하여 신도시는 “국가 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설정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 계획에 의하여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형 정주 공간”으로 정의 될 수 있다.

### 2. 신도시의 건설 역사

우리 나라에서 신도시의 개발은 국토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공업 단지 조성, 댐의 건설, 위성도시의 건설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국토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60년 대 후반부터 하나는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 도시로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외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도표를 통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신도시(신시가지) 건설 현황(시기별, 목적별)

구 분	1960	1970	1980	1990
산업 도시 산업 기지 배후 도시	울산 (1962)	포항 (1968)	구미 창원 · 여천 (1973) (1977)	광양 (1982)
대도시 문제 해결	· 서울의 불법 주택 철거 · 이전	성남 (1968)		
	· 서울의 공해 공장 이전		반월 (1977)	
	· 수도권 주택 공급 · 서울의 인구 분산		분당 · 일산 평촌 · 산본 중동 (1989) (1989) (1990)	
	· 서울 도심 기능 분산 · 주택 공급	잠실 (1971)	목동 (1983)	상계 (1986)
연구 학원 도시		대덕(1974)		
낙후 지역 거점 개발		동해(1978)		

3.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배경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도시화에 따른 도시 지역의 심각한 주택 부족란 해소가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중요함을 인식하고 1980년 12월 택지 개발촉진법을 제정, 동 법에 의한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하여 택지를 대량 공급하므로써 증가하는 주택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왔다.

서울의 주택문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우선 주택의 절대량 부족이고, 두 번째로는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고, 끝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아파트 투기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있다.

한편 정부는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주택 가격 안정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의 대량 공급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6공화국 출범 당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을 1988년 9월에 추진하였다.

동 계획에 의한 수도권 지역 주택 건설 물량은 총 90만 호로서, 서울 시내의 주거지역내 나 대지등 가용 토지에 40만 호를 건설하고, 나머지 50만 호는 서울 주변 지역에서 택지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안양 평촌 지구와 군포 산본 지구가 계속해서 1989년 초 중동 지구와 기타 고양시 원당, 능곡 일대의 몇 개 지구가 택지 개발 지구로 고려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만으로는 50만 호의 주택 건설이 어려울 뿐아니라 주택 문제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서울을 둘러싼 개발 제한 구역 외곽지역으로서, 서울에서 1시간 이내의 통행권에 있고 중상층 이상이 서울 거주자를 유입할 수 있는 신도시의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수도권 내의 신 주택단지의 입주 행태 조사 결과, 신 주택 단지의 소용 인구의 4%이내

만 수도권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인구 집중의 요인은 주로 일자리와 교육 기회 등이며 주택 공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신도시에는 공장이나 대학 등 인구 유입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립을 규제하고, 서울 지역의 도시 기능 중 일부를 이전 유치할 경우 신도시가 수도권의 기능을 분담 수용하고, 서울 인구의 과밀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수도권 분산 정책에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Ⅲ. 신도시 지역의 특성

입지 유형별로 볼 때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는 기성 시가지로부터 물리적으로 고립된 환경에 건설되는 도시와 신도시이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의 경우는 기존 도시 내부의 신시가지 형태인 도시내 신도시이다. 이들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정책 도시이다.

국가 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설정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하여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이다.

구분	일산신도시	분당신도시	평촌신도시	산본신도시	중동신도시
위치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부천시
면적(만평)	476	594	154	127	165
수용인구(명)	27만6천	39만	16만8천	16만6천	17만

(도표1 토지개발 공사)

#### 2.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3. 신도시 지역의 인구 분포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인 젊은 세대들이 주축을 이루는 지역이라고 분당 교당 백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신도시 지역의 교당 현황(도표 2)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신도시 지역 사람들의 학력 정도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 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생활 수준도 중상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 교당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분 당	일 산	화 정	시 화	둔 산	하남(광주)
연 령	31 - 40	31 - 40	31 - 40	41 - 50	41 - 50	41 - 50
학 력	대졸	대졸	대졸	고대졸	대졸	중고
생활수준	중상	중상	중	중	중	중하

(도표2 신도시 교당 교도 현황)

### Ⅳ. 신도시 지역의 개척 교화 현황 및 특성

신도시 지역의 개척 교화 출발 현황을 보면 개 교당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 특히 정책적으로 출발한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여건에서 시작한 점을 도표 3에서 볼 수 있다.

	분 당	일 산	화 정	시 화	둔 산	하 남
입주규모	매 입	전 세	분 양	하 숙	전 세	전 세
개척교회장소	빌 딩	아파트	빌 딩	교도 가정	상 가	빌 딩
현주소	빌 딩	주 택 단지상가	빌 딩	교당어린이집	빌 딩	빌 딩

(도표3 신도시 개척 교당의 현황)

분당과 일산 교당은 교단의 요청에 의해 서울 동, 서부 교구에서 시작하였다. 동부 교구에 서는 분당 교당을 책임졌으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모인 1억원으로 훈련관을 짓기로 하고 교당 짓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정책의 기본성을 놓지 않고 방향을 모색한 결과 석문교당을 매각하고 분당으로 이전하여 교당을 마련하게 되었다. 분당 교당은 석문교당을 승계하는 교당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일산 교당은 교단의 요청에 의해 서부 교구가 주축이 되어 교당 부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교회 장소는 부지와는 별개로 처음 교구에서 준비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교화해 오던 중 주민들의 지탄과 여론에 따라 교회 장소를 시(市) 외각으로 이전하여 교도의 전원 주택에서 실시하였다. 그것도 잠시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주택단지 전세 상가에서 교화를 시작하였다.

화정교당은 한 개인의 특별한 신심으로 법당과 생활관의 완벽한 모습을 구비한 채 교무를 받아 교화를 시작하였다.

시화교당은 특지가의 회사와 대출로 어린이집과 법당을 신축하며 교도의 가정에서 교화를 해 오다가 신축된 건물에서 교화를 시작하였다.

	분 당	일 산	화 정	시 화	둔 산	하남(광주)
교회기간	5	4	3	2	4	6
교 무	3	1	1	1	2	1
일 반	222	150	74	16	68	23
유 년	40	30	43	4		5
학 생	24	15	3	2		
청 년	13					15

(도표4 신도시 교당 교화 현황)

둔산 교당은 둔산 신도시에 대한 소식과 함께 정책적으로 교화의 터전을 마련코자 교화 부장과 교구장께서 대산상사님의 부축의 말씀에 따라 특지가의 회사금과 교화부로부터 차용해서 전세 빌딩에서 교화를 시작하였다.

하남교당은 교도의 자발적인 발원과 교도의 역량에 의해 연원교당과는 관계없이 전세 빌딩을 얻어 교화하던 중 불가피하게 다시 옮겨 전세 빌딩에서 교화를 시작하고 있다.

오늘날 각 교당의 개척 교화 출발 현황을 보면 교단의 구체적인 정책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역자는 책임과 의무를 느껴가며 교화에 전력을 하고 있었다. 교화는 지역의 특성 및 교회장소의 여건, 교역자의 개인차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교단의 정책과 배려가 뒷받침되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리라 본다.

각 교당의 상황을 보면 교당마다 내재해 있는 과제들이 있다. 그러나 신도시 지역의 교당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공통적이다. 바로 이 공통적인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단행될 때 신도시 지역의 개척 교회는 고기가 물을 만나 헤엄을 치듯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 V. 신도시 지역의 개척 교회의 방향 모색

신도시 지역의 개척 교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신도시 지역에서 교화하고 있는 교역자들을 만나 의식과 태도를 통해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파악한다.

1. 신도시 지역에 근무하는 교역자의 신도시 개척 교화에 대한 태도 조사를 보면 1) 신도시 지역의 개척 교회는 보람이 있다(3명) 힘이 든다(8명)고하여 신도시 개척 교회는 보람은 있는데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이 이구 동성이었다.

특히 교당이 전세인 경우 계속 옮겨야 하는 문제와 신축해야 한다는 걱정과 근심은 해결이 쉽게 되지도 않으면서 힘이 들뿐이었다. 신도시의 교도들의 생활은 중산층이나, 전반적으로 주택 마련에 급급해 있었다. 이러한 교도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하는 일은 한사람의 교도가 소중한 개척 교당에서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부담 없이 드나 들 수 있는 안정된 법당이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거기 전세로 있나요? 묻는다.)

2. 교화를 하던 중 가장 답답하고 어려운 점에 있어서 인력 문제(5), 경제(3), 시간(2), 개인의 능력(1)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화를 시작하는데 함께 상의하고, 동행해 줄 사람이 없어, 망설이기도 한다. 1인 다역으로 교화, 살림 및 유지, 의식, 기타 상설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피교화자를 만나러니 벌여 놓은 일은 많고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산적한 일속에서 놓치고 마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개척 교당의 경우 교당을 알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실질적으로 현수막 하나 거는 일이나, 간판, 홍보를 위한 유인물 인쇄 등 꼭해야 할 일에서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 사람도 없고, 교화를 하자니 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아 할 수가 없다. 개척 교당의 경우 교도가 생기고, 자립이 서기까지 교화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꼭 필요하다.

3. 신도시 지역의 개척 교당은 교역자가 한사람이다.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교도가 젊은 반면에 어린이 교도가 많다. 그러나 훈련된 지도자가 없어 교무의 능력에 따라 교화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함께 교화할 교도를 양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재가 교역자가 양성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이 때로는 갑갑하기도 하다.

신도시 지역의 교무들은 교당을 알리고, 교도를 찾고, 교도를 만나고, 심지어는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결같게도 계속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도 인력, 경제의 문제이기도 했다.

교화를 쉬어야 할 것인지? 함께 할 수 있는 인력은 교역자 대우의 차원에서만 순위를 찾기보다. 교화지 우선 순위로 전환될 필요는 없는지? 점검되어 개척 교화를 위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개척교화자의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나? 는 물음에 개척 교화는 대체로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을 보면 개척 교화는 단 시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극복해야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척 교화가 힘이 든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교무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개인

기도로서 극복하고 있었다.

개척 교화에 임한 교무들은 열정이 있었다. 그러나 주위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식어가고, 어려움은 사기를 저하시킨다.

신도시에서 법당을 장만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인력이 적고, 이제 겨우 길들여 가는 입장에서 교도들에게 부담만 준다.

전반적으로 신도시 지역의 교당은 1. 교화 장소 마련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2. 함께 교화할 교도가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교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주위의 여건은 우수하나 교무들의 개인차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신도시 지역에 있는 교당이 안고 있는 문제는 공통점이 있었다. 신도시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면 그에 걸맞는 교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리 교화의 여건이 좋은 곳이라 하여도 개척을 한다는 데에는 교화 정책이 수반되어 지원과 배려가 함께 할 때 신도시 지역의 교화는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신도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따라서 투자된 만큼 그 효과도 크다.

## VI. 결론

신도시 지역의 개척 교화는 교단의 정책에 의해 적극적인 후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신도시 지역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개척 교화를 시작해야 한다. 신도시 지역은 서울과 인접하여 사람들의 하루의 생활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말하면 신도시 지역에는 서울에 있는 교당을 다니는 교도들의 수요도 많다는 것이다. 신도시 지역의 교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방법은 신도시 지역의 교도들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교단에서 정책적으로 단행하지 않으면 원불교의 교화는 늘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 서울 교구 교무회의 자료에서 보면 서울 시내 교당 교도의 주거지와 다니는 교당의 지역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경우를 보았다. 신도시 지역에는 기성교도, 목은 교도등 많이 거주한다. 교도들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다니던 교당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도시 교당의 유지 책임, 부담감, 개인의 성적 문제, 교무님의 허락, 교단의 정책 부재 등 이 시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점검되어야 한다.

신도시 지역의 개척 교화는 교역자 한사람의 힘으로 점철되지 않는다고 본다. 신도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자립교당이 된 분당 교당의 경우(원기 80년 백서)를 보면 기존의 석문교당을 승계 하면서 타교당 전입교도의 수요가 50%, 숨은교도, 목은 교도가 40%이었고, 10%정도가 분당 자체신입교도이었다. 바로 이점을 볼 때, 신도시 지역의 교화는 정리되어질 필요가 있다. 교역자의 개인차도 있었겠지만 이제 교화는 교역자 혼자만이 교화할 수 없다. 신도시는 사람이 모여든다. 교단은 개개교당의 독보적인 형태를 고수하는 것만이 최선책은 아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곳에 더 크고 완벽한 교당을 고수할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의 교화는 늘 그 자리에서 서성거릴 뿐이다. 전세계를 장악하는 모종단은 “주거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한다. 바로 이 길이 교단이 사는 길이요 면면 촌촌에 교당이 설 수 있다는 대중사님의 뜻이 실천되는 길이다.

더 이상 주춤거려서는 안된다. 국가 정책에 의해 신도시가 자리를 잡듯 교단의 정책에 의해 신도시의 개척 교화는 이루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 언젠가는 치뤄야 할 일이라면 심오한 연구 속에 대책을 세우고, 이를 단행시켜서 교단의 교화가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소도시 지역의 개척교회 연구

### -사례담을 중심으로-

이진도 교무(후포교당)

저는 졸업후 삼동원,보화당,제약사등 15년을 기관만을 근무 하다가 처음으로 전임의 권유로 경북 울진군 후포교당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해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와 세계 지도를 펴 놓고 바라 보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그 어느곳이든지 아름다운 곳 위락시설은 교당이 신설되기를 막연히 기도하며 마음으로만 우리나라와 세계여행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아침 좌선 및 기도후에 우리나라 지도를 자주 바라 보던 어느날 우리나라 형상이 호랑이라고 하는데 동해안 호랑이의 허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3.8선 쇄사슬을 풀지 못하는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어 도로와 철로는 동맥으로 도로 확장과 철로가 삼척까지 연결되고 흥해,영덕,영해,울진, 원덕, 청송, 봉화, 예천등 연원교당 설립을 위한 기도를 자연스럽게 부임하고 3개월 후 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만 국집한 것 같아 82년 총회 후에는 서해안에서 경기도 강원도를 거쳐 동해안 간성까지 3번을 오르 내렸습니다.

개척교당 할곳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며 특히 영덕군과 울진군은 후포 교당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므로 제일 먼저 점을 찍었기 때문에 영덕읍과 울진읍 큰 길에서 골목까지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기금도 없을 뿐더러 개척교당 하겠다는 인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후포교당 교도님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후포에 부임할 때 교회 경험도 없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좀 가벼운 곳으로 부임한 곳이기 때문에 교도님들의 법회 참석 숫자는 10명-20명 사이의 아주 적은 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당 부지나 전셋집을 수없이 보게 되었고 영덕지역 울진지역 종교수와 인구를 알아보고 영덕신문과 울진신문을 구독함과 동시에, 영덕신문을 비롯하여 울진신문 원불교신문에 교도님 찾는 광고를 낸 후 이곳 저곳에서 온 연락으로 찾은 교도님 7분과 교구장님 그리고 교구 교무님들을 모시고 부임 10개월만에 영덕읍에 첫 법회를 30여명이 보게 되었습니다.

영덕교당 설립을 위한 첫 법회 후에도 계속 개척교당 신설에 공을 드려 2년 후인 82년 11월에 전셋집을 계약하고 83년 1월 심성전 교무가 부임하여 집수리와 비품 등을 준비하며 원기 83년 3월 29일 좌산 중법사님을 모시고 법회를 보았으며 같은 해 5월 21에는 영덕교당 봉불식을 하는 기록하고 성스런 은혜를 입었으며 대중사님의 성령이 이곳 영덕에도 내리고 우리 모두에게 고루 주시는 듯 하며 산천 초목이 우쭐거리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자나깨나 앓으나 서나 오로지 연원교당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연원교당 만드는 일이 의두 연마였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스승님과 선진님들께 자문도 구하며 전임이 하던 이곳의 명물인 명태와 북어 장사를 구체적으로 하여 기금을 모으기로 하였으나 장사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입과 판로 등 고객 확보와 좋은 물건을 싼값으로 구입하여 팔기란 전문가도 아니고 하여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돈을 벌어 보겠다고 북어, 오징어, 나물, 미역 관태장사를 해 보았으나 처음하는 장사라 물건 선별이 서툴러 잘 못샀는가하면 시기와 판로 등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익뿐 아니라 운

반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곳 후포에서 익산과 광주는 거리가 멀어서 6시간-7시간이 걸리므로 물건을 한차 싣고 구정이나 추석에는 차안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자주 있었고 부피가 커서 물건을 밖에 쌓아 놓고 밖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도 경험 부족으로 때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원교당 만드는 일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초창 당시 대종사님을 비롯하여 구인 선진님들이 영광 길룡리 깊고 깊은 산골에서 숯장사 하실 때의 고생과 그 많은 물건을 어떻게 보관 및 운반을 하셨으며, 익산총부 건설 당시 옛장사 하실 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으셨을까 혼자 상상도 하면서 대종사님을 비롯하여 선진님들과 이곳 후포 역대 교무님들께 깊이 감사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숯장사와 옛장사를 하신 뜻을 조금은 알 것도 같았으며 그럴 수밖에 없으셨겠다는 생각도 하며 그 시대 가장 천하게 여긴 숯장사 옛장사를 하신 위대하신 대종사님의 참뜻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떻게 해야 연원교당을 만들 수 있을까 때로 막막하여 좌절 할 때면, 또 다시 대종사님과 선진님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전무 출신의 도에 ‘天下大事를 진정으로 만 하면 크고 작은 일이 자연히 다 이루어지나니라’ 하신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라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추진 하던 중 또다시 막막하여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하신 대종사님의 그 심경이 헤아려지며 나의 의두 연마가 되었고 전임이 이곳에서 명태 장사를 하게된 연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울진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산에 가니 산이 높으므로 계곡이 깊고 계곡이 깊으므로 물이 많았습니다. 그 경관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했을 때 기쁨과 보람이 크고 그 과정에서 三大力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라 더욱 연원교당 서원을 다짐하였습니다. 보고 듣고 모든 생각이 연원교당을 만드는 일이기여 후포교당에서 키우는 군자란이 꽃을 피워도 새로운 축이 나와도 연원교당을 만들라는 속삭임으로 가슴이 설레이곤 하였습니다.

83년 1월에는 연원교당 전세금을 지불하고 현금이 없던 차 공장에서 IMF관계로 물건 값이 오르면 현금이 아니면 관태를 주지 않아서 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꿈에 대산상사님께서 진지를 잡수시고 남겨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셔서 먹는 꿈을 꾸 그날 아침, 서면세타원 최세진 교무님께서 울진이 고향인 조도권·박원각 내외분이 선조님 특별 천도재 모신 재비 육 백 만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힘겨운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 곁에는 항상 이끌어 주시고, 아껴주시고, 호렘하여 주시는 사은님과 스승님의 크신 은혜와 위력이 늘 함께 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울진군 울진읍에 연원교당을 개척하기 위하여 계속 준비중에 있으며 모든 일들은 스승님의 가르침과 법신불의 크신 위력과 재가 출가 호법 동지들의 크신 은혜와 영덕교당 심성전 교무님이 교당 봉봉식을 거행하고 들어온 봉불금 800만원을 울진교당 기금으로 준 것과, 중법사님께서 경주에서 합동법회를 보시고 후포교당에서 주무신 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다가 연원교당 설립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중법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호법 동지들을 모시고 염원을 올린다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쁘기도 하려니와 감격하여 울면서 기도문을 읽는 것을 보시고 또, 연원교당 설립의 간절함을 보시고 교도님들이 올린 시봉금을 울진교당 기금 하라 하시며 금일봉을 하사해 주시는 것이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장사해서 모은 이익금과 재가 출가 호법 동지들의 정성어린 성금과 후포교당 부임한 조종현 교무의 합심 합력으로 울진교당 개척을 서두르고 있으나 기금과 인연 부족 그리고 한일 어업 협정으로 북어 마저 가격이 상승하여 장사에도 어려움이 겹쳤으나 다행스러운 것은 울진군과 익산시가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있어서 울진교당 개척에 더욱 보람과 긍지를 가지며 이 일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개척 교당을 할 무렵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대중사님의 일원대도로 동서 화합과 남북통일을 이루어 하나의 세계 건설을 재촉하시는 듯 하며 이것은 교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차분히 하나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가 많은 울진에 재가 출가 누구나 재충전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고자 염원하며 후포교당의 최초교당 자리인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에 390평 대지를 창립 유공인이신 기타원 이법심행님께서(현재 수양원에 계심)희사하여 법인으로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대지는 교당도 교무도 없는 곳에서 창립주인 이법심행님이 그때 혼자서 교화하신 터전입니다.

그 공덕으로 오늘날 후포 교당의 모체가 되어 영덕교당, 울진교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울진 교당을 신설하고 기금이 확보되면 울진교당은 희망자에게 물려주고 德仁리에 쉼터를 마련하고자 염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으나 모든 일은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은혜와 위력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일은 법신불 사은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만 올리며 스승님들께서 말씀하신 천하대사를 진정으로만 하면 크고 작은 일이 자연히 다 이루어 지나나라 하신 말씀을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三大力이 不足하고 역량이 미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 개척교화의 필요성 ★

대중사님과 우리 선진님들이 개척자이시기 때문에 그 스승님께 그 제자 그 선진님께 그 후진이 되기 위해서이며 우리 교단은 초창 교단으로 개척 교화 및 개척 교당 신설을 해야 할 곳이 한량없이 많습니다.

대중사님께서 면면 촌촌을 말씀하셨고, 대신 상사님께서도 해외 개척 훈련원 및 개척교당을 원기 70년대에 말씀하시고 좌산 중법사님께서도 통일 이전에 군청 소재지까지는 교당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광역시, 군청소재지, 시, 읍, 해외 등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일하고 한가하게 편안한 교화를 할 여가가 없습니다. 우리 선진님들은 3-40대에 조그마한 전세 방, 집에서 개척 교화를 하시면서 어려움 속에서 대중사님과 9인 선진님들의 창립정신을 심신으로 체 받으셨고 어려움 속에서 人格과 삼대력을 성숙시켰으며, 지금도 대중사님 말씀만 하셔도 우시는 것은 스승님께 대한 사무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교무님들은 많고 부교무님들은 부족하면서도 정체 현상으로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화를 안하고 개척교당 신설을 미루는 것은 바로 교화 침체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영덕에서 입교시킨 교도가 교당을 기다리다가 없으니 천주교에 귀의하여 천주교 교리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입교는 어렵게 시켰지만 신심이 없는데다 자녀가 천주교 유치원에 다니다보니 자연이 그렇게 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당이 늦어짐은 교도를 놓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물을 파 놓으면 고기가 모이게 되어 있듯이 어렵지만 개척교당을 하다보면 교도도 모이게 되고, 그 속에서 전무출신도 나올 수 있고, 교당을 세울 인재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일에 재가 출가 모두가 합심해서 전 교역자가 개척자가 되고 개척교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같이 개척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살아 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명박 의원이 일요일 잠바 입고 모자 쓰고 교회 앞에서 주차 안내를 하며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대종사님과 사은님께 보은하기 위해서 교당을 개척하고 개척 교화에 불을 지켰으면 합니다.

기독교는 면면 촌촌이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화의 저면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시, 군, 읍, 단위마다 한 교당이 한 교당을 개척했으면 하는 염원을 합니다.

#### ★ 개척교화가 안되는 이유★

전혀 모르니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 개척교화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 기관만 근무를 하다보니 개척교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첫째 원인은 전북권 기관에 근무를 하다보니 일주일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총부나 인근교당에서 법회를 보는 생활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에 개척교화나 개척교당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야 할 곳이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고, 우물안 개구리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교당 간판을 걸 시기에는 보는 것이 간판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와 관계 있는 것만 관심이 가듯이...

저 자신 15년 동안 기관에 살면서 개척교당신설이나 개척교화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기관 그 생활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후포에 부임하여 지구라고 하는 포항교당은 2시간을 가야 되고 교구라고 하는 대구는 무려 3시간~3시간 30분이 걸리며 교구회의에 참석을 하려면 일반 버스를 이용할 경우 새벽 5시에 출발하여 회의를 마치고 교당에 오면 밤 9시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이웃 교당이 너무 멀기 때문에 연원교당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되고 개척교화와 개척교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염원을 하면 길은 있다고 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남이 다 이루어 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 보다는 남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도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개척 교화의 열정, 사명, 의지가 불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덕교당은 개척교화의 사명의지로 이루어 졌습니다. 도저히 할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영덕교당 기금을 모으기 위해 후포교당에 부채가 있으면서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고 보니 부처님 사업이라 길은 있었습니다.

#### ★ 개척교화를 위한 제언 ★

##### 개척교화를 위한 훈련과 세미나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개척교화가 봄을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조그마한 가게, 아파트의 방 하나를 얻어 가지고 생명을 걸고 합니다. 이곳 후포면에 만 해도 6개나 되고, 세미나도 있고, 그룹으로 실지 훈련도 있습니다.

##### 개척교화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적은 것도 개척교화를 못하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개척교화 활성화 방안은 재가 출가 전 교도님들이 개척교화 및 교화의 사명감이 살아 나

야 하겠습니다. 대중사님께 보은하는 것이 개척, 창립, 사무여한, 무아봉공 이라는 사명감이 용솟음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개척교화 할곳은 교단, 교구, 지구에서 설정하고 공동으로 농구 선수가 농구공을 골인시키듯, 마라톤 선수가 목표점을 향해 달리듯 꾸준히 해야 합니다.

프로도 때로는 노골(NO GOAL)이 될 경우도 있듯이 실패가 있어도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개척교화에 대한 자문, 컨설팅 및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스승님들과 선배님들께 자문도 받았고 영덕 울진은 꼭 해 놓고 이동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진 교당의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미싱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 실력으로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되어서 할 수 없이 전문가에 의해 수리를 하고 모터를 달고 보니 잘 될 뿐만 아니라 몇 배 빠르게 바느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개척 교화도 그 분야의 전문가의 지도와 자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전문 지도와 자문을 해 주고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개척교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몫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言語, 文化, 피부가 서로 다른 해외 개척을 하시는 우리 교무님들 세계 각국에 일원 중자를 뿌리 내리게 하신 교무님들 참으로 기록하고 숭고하며 해외에 근무 하시는 모든 교무님들께 존경을 보냅니다.

전국 각 기관 교당 개척 교당에 근무하시는 모든 교무님들께도 존경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 개척교화 개척교당 신설의 열정을 태워 이곳 저곳에서 개척교화, 개척교당이 활화산처럼 솟구치고 번지도록 염원하면서 스승님, 재가, 출가 전 교도님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 드립니다.

... ..

**연원교당 설립 기원문**

- 천지 하감지위
- 부모 하감지위
- 동포 응감지위
- 법률 응감지위

오늘은 원기 84년 4월 1에 원불교 후포교당 기원인 일동은 삼가 재계하옵고 명명하옵신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의 정성을 올리나이다.

원력이 간절하고 정성이 지극한 곳에 크신 위력을 내려 주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재일우로 이 땅에 오신 소태산 대중사님께서 구도의 역정을 거쳐 영춘에서 26세에 일원대도를 깨달으신 후 변산에서 교법을 제정하시고, 익산에서 새 회상을 열으신 후 떠나신 지 56년 우리 나라와 세계 곳곳에 교화의 판을 벌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영덕군과 울진군 지역 주민들도 일원의 진리에 귀의하여 창립주인 혈심주인의 무수한 불보살이 배출되어 영덕, 울진 지역을 비롯한 동해안 경북 교화에 크게 기여하게 하시옵소서.

교세가 미진한 동해안 경북 일원에 연원 교당을 창립할 창립주인 혈심 주인을 찾고 만나서 일원대도가 꽃피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영덕읍 울진읍 흥해읍 원덕읍 영해 평해읍 예천읍 봉화읍 청송읍에 혈심주인 창립주인이 모여 일원의 법음을 전하는 법도량이 마련되어 무수한 불보살이 배출되고 나아가 후포교당에서 판매하는 명태의 이익금으로 울진에 교당의 기틀을 하루속히 마련하게 하옵소서.

원하면 이루어지게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제가 출가가 일심으로 직공하여 삼계대가 사생자부이신 대중사님 분신으로 거듭나게 하시오며 이 나라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일원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 위락시설 아름다운 곳은 조불도량, 훈련도량, 천도도량, 기도도량, 법생지, 은생지, 도생지로 화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울진읍에 법도량이 조성될 때까지 기도의 정성이 쉬지 않겠사오니 천지님도 하감하시고, 삼세 부모님도 하감하시고, 일체 인류 삼라만상이 감응하시고, 삼세 제불제성께서 조감하시와 이 불사가 순조롭게 이루어 지도록까지 호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해안 경북 일원에 천도받지 못한 무주유주 고향들의 완전한 천도를 기원하오며 동해 바다 수많은 어류들도 진급의 길 은혜의 길 천도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자대비 하옵신 법신불사은이시여!

정산종사 탄생백주년 성업 봉찬 사업이 전 교도님들의 협력과 정성속에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나아가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일환으로 경북 동해안 교화가 활성화되고 각자 각자가 심화 기화 인화로 가정 가정이 화목하고, 재가 출가가 화합하며, 선진과 후진이 화합하고, 여·야가 화합하며, 종교인과 종교인이 화합하고, 남과 북이 화합하여 이 나라가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으로 거듭나게 하시옵고 이 기도에 동참한 기원인 모두의 범위향상과 더불어 개개인 모두의 소원하는바 뜻을 원만히 이루도록까지 정성스럽게 직공하여 영겁 다생에 행복의 문로가 길이 열리게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덕산리에 기타원 이법심행 불제자가 회사하신 땅의 교단이 바래고 스승님들이 염원하시는 방향으로 많은 특지가들의 협력과 정성속에 순조롭게 이루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후포교당 교도님들과 이 기도에 동참한 기원인 일동의 가정 가정에 법신불 사은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호렘속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여주시옵소서...

일심봉축 하옵고 사배복고 하옵나이다.

## 많이 알만주 교화

### -전곡 교당의 예를 통해본 읍면 지역의 개척교화

최정풍 교무(전곡교당)

#### I. 서론

이 글은 전국적으로 읍·면에 있는 교당의 교화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아니며 그 동안의 교화학적 논의를 진일보시키기 위한 순수 학문적 연구도 아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조사 분석 작업이나 개척교화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 규정 등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 이 글의 목적은 많은 개척교회지 가운데 하나인 전곡교당(서울교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의 교화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시도된 것, 계획하고 있는 방안들이 각 지역의 개척교회 담당자들의 교화적 상상력을 조금이라도 자극하여 좀 더 새로운 시도들이 각 지역에서 행해지기를 목적한다. 이런 내용 규정은 원고 청탁자의 의도와 현실적인 연구의 한계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원기 83년 10월에 봉불식을 한 전곡교당을 예로 하고 있기에 거의 모든 논의들이 평가·분석의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공간을 가지지 못한 것들이고, 대부분 가설과 검증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것들이다. 시행착오의 과정에 있는 몇 가지 교화 현장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교화 모색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 II. 교화 상황

##### 1. 교당 여건

가. 기연: 원기82년도 전곡읍 은대리 소재 부지 9천여평을 도봉교당 교도 최운전, 박자은님이 교단에 희사함을 계기로 개발의 필요성 생김.

나. 입지선정: 부지 개발을 검토하던 중 교화 병행의 필요성으로 읍내 중심가에 선정.

다. 경제 기반: 특지가의 희사금 1억원을 기금으로 함.

라. 교화자: 1명의 교무 및 한시적 유급 교화 보조 인력 1명.

##### 2. 지역 여건

가. 인구 현황: 연천군 약5만명, 전곡읍 약2만명, 총인구 감소 추세. 전곡읍에 전체 인구의 37% 집중, 매년 증가 중.

나. 지역 성격: 관광 자원 풍부, 군사시설 집중 지역, 농림어업·서비스업 종사 비중 큼, 제조업 부문 취약, 교육수준 열악.

다. 종교현황: 개신교(연천군 78개소, 5,316명/전곡읍 22개소, 1,880명), 불교(연천군8개소, 1,470명/전곡읍7개소 1,440명), 천주교(연천군2개소 550명/전곡읍 1개소 300명)

라. 장단기 전망: 남북교류 거점도시, 수도권 식량공급기지, 관광·레크레이션 공간

##### 3. 교단적 전망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총부나 교구의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으나 지역 여건, 지역 장기 발전 계획, 교당 교화의 추이 등과 교단의 구상들이 종합되어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 4. 현재까지의 주요 교화상황

가. 홍보: 교구 한울안 신문 특집판 배포(83년 5월, 약3,000부 야간 호별 배포), 평생교육에 관한 요구조사(83년 6월, 대상 100여명, 조사원 17명, 조사 결과 지역 신문에 게재됨), 원광평생교육원 홍보물 배포(6,000부, 신문 전단지 배포 방식, 우편발송 100부), 봉불식 홍보(83년 10월, 지역신문 광고, 1면 5단 통/ 경축행사①‘미아방지용 팔지 또는 목걸이를 만들어 드립니다.’ 행사 안내 전단, 각 어린이집 약500부 직접 배포/ 경축행사②‘98동그라미 청소년 제기차기 대회’행사 안내 전단 약800부 직접 배포/ 경축행사③‘할머니, 할아버지 영정 만들어 드려요.’행사 안내 전단 약100부 각 리별 노인회관에 배포/ 경축행사④‘천도재를 지내드립니다’행사 안내 전단 약50부 배포/⑤택시 기사 약 50명에게 음료수, 안내장, 안내책자 등 직접 배포/ 현수막5개, 걸개 1개, 안내용 현수막 10개), 무료 중학생 공부방(83년 12월, 현수막 2개 부착, 전단지 5,000장 배포, 게시판 부착), 반야심경 공개강좌(83년 12월, 현수막 3개, 신문 광고5단1/4크기)

실직가정 겨울나기 돕기(84년 1월, 신문광고 5단 통, 신문사 협찬 받음), 한울안 축구단(전단 약 200부 직접 배포, 게시판 부착)

나. 원광평생교육원: 선물포장(5명), 중학생 서당 실시(5명)

다. 실직가정 돕기: 실업극복 국민운동의 ‘실직 가정 겨울나기 돕기’ 프로그램으로 연천군 내 실직 가정 219 가정 추천 완료하여 3개월간(1월-3월) 매달 10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배포 중(총액 약6600만원 상당).

라. 교당교화: 일반 범회(화요일 오전 9시 30분, 일요일 오후 4시, 성인 교도 약 10명 참석), 어린이 범회 (토요일오후 3시, 축구단 어린이 약 15명 참석)

마. 어린이 축구단: 올 봄 방학부터 창단 활동 중(모두 원불교 어린이회원으로 함.)

바. 삼동청소년회: 지회 설립 등기 중, 예절 교육 실시 예정(군내 초·중·고교 23개교 2,762명 대상), 청소년상담실 등 청소년시설 수탁 협의 중.

사. 부지 개발: 건축허가 관련 군부대 협의 중(군사시설보호구역)

#### 5. 단기 교화 계획

가. 상반기 주요 계획: 성인-정신수양법회 개설, 무료 천도재 실시 예정, 청소년-봉사동아리 결성, 청소년신문 창간 예정(연천군 전체 청소년 대상),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나. 하반기 주요 계획: 1개 기관 수탁, 가칭 연천 지역 사회 연구소 개설(여론조사, 지역현안 연구), 부지 개발

### Ⅲ. 교화계획

#### 1. 목적:

전곡지역의 낙원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도 안정되고 바람직한 여건 속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2. 단계별 목표

향후 10년간의 교화의 양적 목표는 1,000명 출석 교도와 전곡지역(연천군)에서의 여론 주도적 지위 획득에 있다.(10년의 기간보다는 목표에 중점이 있음)

· 1단계 목표: 인지도 10%, 교당 출입자수 매년 300명, 대면자수 매년1,000명, 입교수

매년 50명, 삼동청소년회 연천지회 조직

· 2단계 목표: 인지도 20%, 출석교도150명, 입교수 매년 150명, 경제자립 달성(교당 유지 및 교화비)교당 규정에 따른 교당 조직 완료, 지역사회연구소 개설, 평생학습 기관 설립 운영(한글학교, 야학 등)

· 3단계 목표: 인지도 40%, 출석교도300명, 입교수 매년 200명, 경제자립 달성(교도들로부터의 수입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정도), 환경이나 교육관련 시민단체 조직

· 4단계 목표: 인지도 60%, 출석교도500명, 양적 성장기, 지역사회 체단체와의 정보 공유 주도.

· 5단계 목표: 인지도 90%, 출석교도 1,000명, 여론 주도적 지위 확보

#### IV. 교화 방침-「많이 알·만·주」교화

개척교화 제1의 방침을 ‘원불교를 많이 알리고, 인연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많이 주자’(이하 ‘많이 알·만·주’로 쓰기로 함.)로 삼았다. 이는 결국 원불교에 대한 낯설음을 해소, 극복하자는 것이다.

교화자가 부딪치는 가장 큰 문제는 원불교에 대한 대단히 낮은 인지도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비단 개척교화에 있어서 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 교당 교화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문제를 원불교 교화 제1의 선결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화현장에서 교화전략 수립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엄밀히 말해 ‘많이 알·만·주’가 교화의 전부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인연들을 조직하고’, ‘그 조직으로 신앙·수행하며 낙원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 나머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이 알·만·주’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주로 이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당연해 보이는 이 작업들을 현장에서 다양하게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많이 알리고

많이 알리는 목적은 물론 ‘낯설음의 해소’에 있다. 상품의 구매에 있어서 인간관계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는 ‘낯설음’과 ‘친숙함’에 크게 영향받고 있다. 낯선 것은 경계 받고 의심받기 마련이다. 원불교라는 종교가 대중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진 종교라도 낯선 것이어서는 대중의 선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불법을 시대화·생활화·대중화했다고 하는 원불교가 얼마나 이 시대 속에서, 생활 속에서, 대중들 속에서 친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재고해봐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원불교 알리기’가 교화의, 개척교화의 전제라는 가정 아래 그 방안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가. 무엇을 알릴 것인가?

(1) 안에서 바깥으로(인사이드 아웃)

일반적인 광고에 있어서 인사이드 아웃의 기획은 광고주에서 시작하여 상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순으로 초점을 두어 기획함을 말한다.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대중들에게 호소하여 원불교를 신앙하도록 선택하게 하는 설득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원불교’ 이름 석자와 ‘○’을 알린다.

‘원불교’라는 이름과 ‘○’라는 종교적 상징을 낯설지 않은 것으로 인식시키는 작업이 대단

히 중요한 것인데도 많은 경우에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 간판이나 인쇄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원불교, 상징물과의 빈번한 접촉이 발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불교 교당이 어디 있는지 알린다.

개척교회에 있어서 교당의 위치를 잘 잡은 다음, 대중들이 쉽게 찾아오도록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찾아오기 쉽게 모든 것들을 배려하는 일은 교화의 기초이다.

셋째, 원불교가 살아 있음을 알린다.

원불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곳에서 무슨 활동인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자는 말이다. 소수의 교도들만이 교당 안에서 그들만의 신앙에 젖어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원불교를 죽어있는 곳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당장 홍보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단적 행사나 대사회적 행사 모두를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은 대중들에게 원불교를 살아 있는 조직으로 느끼게 하리라고 생각한다.

넷째, 원불교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알린다.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곳이란 인식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교당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각개교절’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그 날 원불교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지 까지도 알려나가야 한다. 원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이다.

다섯째, 원불교가 좋은 곳이란 것을 알린다.

아무리 적극적인 홍보를 하더라도 원불교의 모든 것을 알릴 수는 없다. 결국은 지역 사회에 맞는, 주민들의 종교적 요구를 채워주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서 원불교가 자신들의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 작업은 질적인 교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하지 않는다면 사실 앞의 모든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교화 대상자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물량 공세를 계속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하나되는 교화활동이 기획되고 그 것이 다양한 설득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2) 바깥에서 안으로(아웃사이드 인)

일반적인 광고에 있어서 고객에서 시작하여 광고주, 상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순으로 초점을 두어 기획함을 말한다. 원불교 홍보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홍보, 광고가 아니라 교화 대상자들의 다양한 종교적 요구를 파악하여 거기에 부응해 가는 홍보, 광고 또는 교화 기획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광고학에서 순서 잡혀진 것에 거칠게 대입해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지역 정서를 파악한다.

둘째, 교화대상자를 세분화한다.

셋째, 세분화된 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한다.

넷째, 각 집단의 종교적 요구를 분석한다.

다섯째, 타종교의 교화전략을 파악한다.

여섯째, 원불교의 경쟁력을 부각시킨다.

일곱째, 타종교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여덟째, 적절한 수단을 통해 홍보, 광고한다.

이미 마케팅 기법은 영리 조직만이 아니라 비영리 조직에까지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 요점은 생산자 또는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 소비자와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데 있다.

교화에 있어서도 이제는 좀 더 수요자 중심으로 교화를 기획해야 한다. 특히 개척교화에 있어서 이런 시도는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 데, 그 이유는 너무도 오랜 동안 가히 천편일률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단조로운 교화 활동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도를 기성 교당보다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개척교화 현장에서 다양한 종교적 수요를 파악하여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다음 그 검증의 산물들이 기성 교당들로 환류되는 모양새도 바람직할 것이다.

나. 어떻게 알릴 것인가?

교화대상자와 홍보거리, 내용, 예산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교화 대상자들의 매체 선호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역신문: 지역신문은 그 지역의 소식을 상세히 전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익한 매체임은 분명하나 낮은 구독률은 낮은 광고 효과로 직결되고 있으며, 소수의 운영자에 의한 제작 관행은 현안 문제에 대한 편향적 보도 태도를 보이기 쉽다. 더구나 상호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지역신문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특정 신문에 대한 이용이 원불교의 입장으로 비취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교화자의 전문성을 살려 일정분야에 대한 정기적 기고도 권장할 만 하다.

· 정기간행물: 바람직한 정기간행물이 있으면 좋겠으나 공공기관의 것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한 간행물은 없는 것 같다. 시민단체의 부채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을 위한 정기간행물을 구상중이고 교도들을 위해서는 매주 '은혜편지'라는 순교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간행물을 짧은 주기로 제작, 발행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연간 발행이라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 자체 제작 유인물: 교당 소개, 프로그램 안내, 원불교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다양한 인쇄물을 제작 배포해야 한다.

· 포스터: 내용별로 다르기는 하겠으나 다량의 전단지 배포보다 소량의 벽보 부착이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인 수단.

· 현수막: 큰 행사를 앞둔 홍보 수단으로 활용. 효과적이나 다량 제작시 경제적 부담이 크다.

· 전화: 텔레마케팅 기법을 활용하고자 했으나 보수적 지역 정서를 감안하여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음.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 제고 후에 활용할 예정.

· 인터넷: 경기넷을 활용하여 연천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설 예정. 청소년, 지식인층 교화에 유용.

· 기타: 전화번호부의 광고, 상가광고 책자도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 얼마나 자주 알릴 것인가?

잦은 홍보를 하고 싶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경제적인데 있다. 가능한 한 자주 대내외 행사를 홍보하고 마땅한 행사가 없다면 이미지 광고라도 주기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2. 많이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교화의 대전제임을 알고는 있지만 기성 교당의 순교에 익숙한 탓에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매체

를 통한 간접적 만남이 아니라 교화자를 직접 만나거나 교당에 와서 원불교 분위기를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일을 계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직업별로 구분하여 교화계획과 조화되도록 의도적인 만남의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나. 어떻게 만날 것인가?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들과 경계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상별로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기초한 교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만남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교화와는 거리가 있더라도, 탈종교적 프로그램이라도 확대하여 만남의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어차피 교화자를 만나는 상대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종교적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 인연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교도로 만들기 위한 성급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연들과 좋은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연들과의 지속적인 인연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인연관리가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도 조직은 물론 다양한 단체와 연계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3. 많이 주자

개척교화를 한다고 하면 우선 경제적 어려움과 여건의 불비함이 떠오르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화 형태는 그 여건과는 달리 기성교당들 보다 더 많이 베푸는 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알·만·주’교화의 핵심은 많이 주는 데, 즉 은혜심기에 있다고 본다.

가. 무엇을 줄 것인가?

·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삼학수행, 정기훈련 11과목, 상시훈련 과목들을 교육학적 틀로 구조화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단전호흡이나 일기쓰기, 심성훈련 등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주목할 것) 천도재를 비롯한 각종 의식교화 능력. 타종교와의 화합 능력. 타 교당의 우수한 인력 자원.

· 교화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 교화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우수한 능력들을 교화수단으로 삼아 베풀 수 있다. 학력과 기타 능력. 원만한 인격에 기초한 활발한 활동 능력과 친화력 등.

· 교화대상자들이 원하는 것들: 일정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다양한 사회조사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한다.

나. 누구에게 줄 것인가?

누구에게 줄 것이며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교화전략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을 세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 어떻게 줄 것인가?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제공하여 폭 넓게 은혜를 심고, 지속적으로 주며 조직적으로 주어서 인연이 깊어지게 하고, 그들이 다시 새로운 일들로 보은할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마련한다.

라. 왜 주는가?

비교도를 교도로 만든다는 좁은 의미의 교화에 앞서 보은활동이라는 의미에서 폭넓은 은혜심기를 할 필요가 있다. 좁은 의미의 교화에 집착할 때 많이 알리고, 만나고, 주는 기회는 제한되고 결국 좁은 의미의 교화도 더욱 좁아지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주는 일’이 교화에 있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이다.

#### 4. 인연을 조직한다.

많이 알리고, 많이 만나고, 많이 주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은 그 과정에서 만나는 인연들을 조직하여 관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불교가 일반 대중들에게 선택할 만한 기성 종교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양적 교화를 위해 새로운 인연들을 조직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기에는 조직에 가입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비영리 시민단체, 시민운동 조직의 힘이 새로운 사회적 동인으로 작용할 향후 시대를 조망할 때 그 조직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좋다고 본다.

#### 5. 낙원공동체를 지향한다.

대중사님은 교단 안의 낙원화 만을 꿈꾸신 분이 결코 아니다. 한량없는 세상의 낙원화를 목적하신 분이다. 교도 수를 늘이는 일도 교화지만 그 일은 결국 지역사회를 낙원화 하기 위한 일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점들과 현안들에 늘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헌신봉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개 교당이 역할 할 때 지역주민들은 원불교 교당과 교도들을 자기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자신들의 일에 앞장서는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본다. 교화단, 봉공회, 청운회, 여성회 등의 조직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좀 더 대 사회적인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면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조직하고 역할 하게 해야 한다.

### V. 읍·면 지역 개척교화의 특성

#### 1.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 단위의 장점이 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읽어내기가 쉬운 점은 대단히 큰 장점이라고 본다. 여론조사들을 행하기 쉬운 단위이다. 또한 원불교의 인지도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데도 유리하다. 지역 유지들과의 인연을 돈독히 하는데도 대도시보다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2. 지역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교화 계획을 세운다.

읍·면 단위 지역은 도시 지역 보다 뚜렷한 지역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화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특수성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 3. 사소한 실수도 용납해선 안된다.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연결되다시피 하고 인연이 중시되며, 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사회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철저히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성급한 일들로 실수를 거듭해서는 장

시간이 지나도록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4.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

사실 가장 큰 교화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인 교화를 빠른 시일 안에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론이 없다는 데 있다. 노하우(know how)를 축적한다는 각오로 각 지역에 맞는 교화 방법을 새롭게 꾸준히 시도해야 한다. 어쩌면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이 곧 개척교화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양적 관점에서선 몰라도 질적 관점에서선 새로운 시도가 없는 개척교화는 교화는 될지언정 개척교화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 VI. 맺음말

읍·면 지역 개척교화의 특수성을 논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서 검증은 기다리는 몇 가지 가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대체적으로 기존교화의 예를 뒤따르기보다는 새로운 교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단이라고 본다. 특히 ‘많이 알리고, 많이 만나고, 많이 주자’는 내용은 끝없는 노력과 시간의 경과 뒤에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아직 그 실험의 단계에 있는 지금으로선 아무래도 성급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개척교당의 열악한 경제적 기반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주장이기도 하다.

또한 시민단체의 결성과 적극적인 대 사회적 활동의 강조 등은 그 실천적 어려움과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변화를 감안한 부분으로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현시점에서 개척교화에 대한 교화자들의 열망은 크지만 교화의 신속한 성공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물론 그 판단 기준의 문제가 따르겠지만. 그 이유는 최근의 개척교화 성공 사례와 노하우의 부재에 있으며 정책적 지원의 부재에도 있다고 본다.

성공적인 개척교화를 위해서는 개척교화에 대한 교단의 교화정책이 제시되고 거기에 따른 개척교화 대상지 선정 기준 및 방법, 개척교화 인력 수습 계획, 개척교화자 사전 교육 과정, 개척교화자 선정 기준, 개척교화 평가 도구 및 방법 개발, 개척 교당 지원 계획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척교화에 대한 교화학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화 현장은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화성공의 사례를 창조해낼 교화자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단사도 개척의 역사였으며 아직도 거의 모든 분야가 개척의 단계에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글을 쓸만한 교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나, 앞으로 개척교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기대하며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싶다.